

<공개 질의> 4

충원율과 취업률 등 핵심 성과 지표의 개선에 관하여

(질문의 배경)

지난 1월 말 기획평가과에서 주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이 하위권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올해 우리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지정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표) 우리 대학 핵심 성과 지표 값 및 타 대학 비교 순위

항목	지표 값 ('21.4.1 기준)	비수도권 대학 대비 순위	대경강원권 순위
신입생 충원율	92.7%	64/115	15/19
재학생 충원율	93.5%	59/115	13/19
취업률	53.5%	66/115	13/19

* 기획평가과의 설명회 자료에서 발췌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모집 정원의 일부를 감축해야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지표 관리가 부실하여 우리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총 18개교 (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에 불과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학과에 있다는 인식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개별 학과는 성과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도 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작년 한 해에만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충원율과 취업률 등 현재 문제가 되는 성과 지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대학 본부의 노력에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질적 성과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최우수' 평가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업비를 받든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대학이 직면한 위기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외부 요인에 기인한 바 크지만, 핵심 성과 지표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우리 내부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본 <공개 질의>에서는 지난 상황을 되돌아보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 (질문 4-1)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재정지원 사업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과 같은 대학의 핵심 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2021년 100억 원 이상 투입된 재정지원사업이 실제 성과 지표의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학 본부의 분석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4-2) 대학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의 주체는 학과입니다. 하지만 학과 교수님들께서는 국립대학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대학 본부가 학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 왔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4-3) 올해 정부 재정지원사업 추진으로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한 대학 본부의 전략에 대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 핵심 성과 지표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지표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전적으로 대학 본부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본부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학과의 협조를 얻기 위한 소통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본 <공개 질의>가 대학 본부의 리더십과 학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1년 후 개선된 성과 지표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2022.02.09.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